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오늘 개막...신의현 첫 메달 도전

노르딕 스키 간판...5일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좌식 6km 출전 한국 동 2 목표...휠체어 컬링·알파인스키 최사라 메달 기대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간 중국 베이징과 영칭, 장자커우에서 개최된다. 대회 개·폐회식은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제13회 동계패럴림픽에는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6개 종목에서 총 78개의 금메달을 놓고 뜨겁게 경쟁한다. 지난달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패럴림픽 슬로건도 '함께하는 미래' (Together for a Shared Future)이다.

한국은 이번 패럴림픽 6개 전 종목에 선수 32명과 임원 50명 등 총 8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동메달 2개다.

장애인 노르딕 스키 간판 신의현(창성건설)에게 동메달 1개, 휠체어 컬링 혹은 장애인 알파인스키 최사라(서울시장애인스키협회)에게 동메달 1개를 기대한다.

한국은 2014 소치 동계패럴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선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로 종합 16위를 차지했다.

첫 메달은 개회식 다음 날인 5일에 나올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장애인 동계스포츠의 간판 신의현은 5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국립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좌식 6km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바이애슬론은 신의현의 주 종목이 아니다.

그러나 신의현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사격 훈련에 전념한 만큼 깜짝 메달도 가능하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한민수 감독이 이끄는 장애인아이스하키 대표팀도 5일 중국 베이징 국립 실내 경기장에서 조별리그 A조 중립선수단(러시아)과 첫 경기를 치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나선다. 메달 획득을 노리는 휠체어컬링 '장윤정 고백' 팀도 5일 라트비아와 예선 1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장애인 알파인스키 한상민(국민체육진흥공단)과 황민규(서울시장애인스키협회)는 활강 경기에 출전한다.

6일엔 신의현의 주 종목 경기가 열린다.

신의현은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좌식 18km 경기에 출전한다.

남자 좌식 18km는 신의현이 지난 1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핵심 종목이다.

신의현은 8일 장애인 바이애슬론 남자 좌식 10km, 9일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스프린트, 11일 장애인 바이애슬론 남자 좌식 10km에도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

11일엔 휠체어 컬링 준결승과 동메달 결정전이 열린다. 준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선 조별리그 4강에 들어야 한다.

장재혁(51), 윤은구(53), 정성훈(44), 고승남(37), 백혜진(39·이상 의정부 톨링스톤)으로 구성된 휠체어컬링은 2010 밴쿠버동계패럴림픽(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메달 도전에 나선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선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7.5km 좌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신의현이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현대건설 '1위 확정 다음에'

코로나 집단 감염에 GS칼텍스·페퍼스 전 등 3경기 연기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경기.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한 현대건설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정규리그 1위 등극에 승점 1점을 남겨놓은 현대건설 선수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1위 확정 시점을 또 미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일 "현대건설 선수단 내에 코로나19 추가 확진 선수 5명이 발생했다. 기존 확진 선수 3명 등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와 리그 정상 운영 기준인 12명의 선수 엔트리 조편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4일 GS칼텍스, 8일 페퍼저축은행, 11일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선수단은 3일 오전 모든 구성원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엔 선수 8명과 스태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현대건설은 19명의 선수 중 8명이 확진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엔트리(12명)를 채울 수 없다.

KOVO는 '코로나19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열흘을 '확진자의 출전 불가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4일, 8일, 11일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V리그 여자부는 코로나19 여파로 12~20일 일정을 중단했다.

21일 정규리그를 재개했지만, 또 한 번 현대건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위기감에 휩싸였다.

KOVO 코로나19 매뉴얼은 '1개 구단에서 출전 가능 선수가 12명 미만이면, 해당 구단 경기만 취소하고, '출전 가능 선수가 12명 미만인 구단이 2개 이상이 되면 리그를 중단한다'고 명시했다.

다른 구단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일정 축소 등의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다.

현대건설 정규리그 1위 확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 현대건설은 28승 3패 승점 82를 기록 중이고 2위 한국도로공사는 23승 8패 승점 67을 획득했다.

양 팀은 5경기를 남긴 가운데, 현대건설은 승점 1점만 거두면 자격으로 우승한다. /연합뉴스

세계 16강 향해...권순우, 오늘 로디오노프와 맞대결

한국-오스트리아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진표 확정

15년 만에 세계 16강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 에이스 권순우(65위·당진시청)가 국가 대항전인 데이비스컵 첫날 유리 로디오노프(194위·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2022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 예선(4단 1복식)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대진 추첨 결과 대회 첫날인 4일 1단식에서는 남지성(462위·세종시청)과 테니스노바크(143위)가 맞대결하게 됐다.

이어 열리는 2단식에서 권순우와 로디오노프가

격돌하고, 5일 복식에서는 남지성(복식 247위)-송민규(복식 358위·KDB산업은행) 조가 알렉산더 엘러(복식 105위)-루카스 미들러(복식 117위) 조를 상대한다.

5일 복식에 이어 열리는 3, 4단식은 첫날 대전을 맞아 권순우-노바크, 남지성-로디오노프의 경기로 펼쳐진다.

4, 5일 올림픽공원 실내코트에서 열리는 데이비스컵 예선 한국과 오스트리아 경기 승자가 9일 진행되는 2022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승패 뛰어넘은 코트 위 우정 '잔잔한 감동'

테니스 보그단, 우크라이나 선수에게 지고도 안아주고 위로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선수에게 패하고도 네트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준 선수가 있다.

세계 랭킹 97위 아나 보그단(30·루마니아)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리옹 메트로폴리스오픈(총상금 23만9477달러) 단식 1회전에서 세계 랭킹 140위 다이아 야스트렘스카(22·우크라이나)에게 1-2(6-3 6-7(7-9) 6-7(7-9))로 졌다.

3시간 5분의 대결전 끝에 야스트렘스카가 이겼지만 네트들 사이에 두고 인사하는 두 선수의 태도는 마치 보그단이 승리한 것 같았다.

졌지만 야스트렘스카를 안아주고, 한동안 위로의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야스트렘스카 역시 승리가 확정되자 코트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이 승리의 기쁨보다는 슬픔에 가득 찬 것 같은 분위기였다.

야스트렘스카의 조국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야스트렘스카가 전쟁 발발 이후 16살 동생 이반나와 함께 부모님과 헤어져 보트를 타고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를 거쳐 프랑스까지 온 사연 등이 이날 경기 후 보그단이 야

스트렘스카를 위로해준 이유로 추정할 뿐이었다.

보그단이 경기 다음 날인 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날 경기를 전후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보그단은 "이 경기는 내가 지금까지 치른 경기 가운데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웠다"며 "나는 야스트렘스카와 그의 동생, 가족이 겪었을 일을 그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라며 "승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테니스가 전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 둘 다 승리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승리는 야스트렘스카의 몫이었다"며 "그는 자신과 가족, 나라를 위해 이길 자격이 충분한 선수였다"고 칭찬했다.

보그단은 또 "이제 겨우 만 21세인데 정말 강인하고, 힘이 넘치는 선수였다"고 치켜세우며 "신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신 신께 감사드리고, 아마 신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라며 "어제 나는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었는데 빨리 이런 악몽과도 같은 순간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야스트렘스카(왼쪽)에게 지고도 위로의 말을 건네는 보그단. <안드레이 노레스쿠 소셜 미디어 화면 캡처>

보그단의 글에 보그단과 3시간 넘게 치열하게 싸운 야스트렘스카가 답글을 달았다.

야스트렘스카는 "정말 기억될 하루, 기억될 순간이었다"며 "모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더 배트맨
2관	더 배트맨, 언차티드, 극장판 바다탐험대 옥토포: 해저동물 대탈출
3관	더 배트맨, 시라노
4관	더 배트맨
5관	더 배트맨, 김메이커
6관	언차티드
9관	해적: 도깨비 깃발
7관 씨네케틀	안테벨룸, 나이트메어 앨리, 나일 강의 죽음
8관 씨네케틀	극장판 주술회전 0, 언차티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